

NYPI

청소년 통계 브리프

Vol.26 2016. 3.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정체성 발달특성 분석¹⁾

김현철 선임연구위원 heram@nypi.re.kr

모상현 연구위원 saarmo@nypi.re.kr

1. 분석개요

- 소수민족으로서의 집단정체성은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변인으로 알려져 있음(Clark & Clark, 1947; Rice, 2003; Sue & Sue, 2011). 다문화청소년들은 외모적 차이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하여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며, 문화변용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경험함(Na, 2008; Romero et al., 2007; 전병주, 2014에서 재인용).
- 다문화인구가 증가하면서 초·중·고에 재학 중인 다문화학생의 인구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2005년 6,121명→2008년 82,536명)이어서 이들의 다문화정체성 발달이 어떤 양상을 띠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다문화청소년연구에서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고 있음.

1) 본 청소년 통계 브리프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5년도 연구과제인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Ⅲ'보고서의 일부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최종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람.

- 본 분석보고서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조사한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문화청소년들의 다문화정체성 발달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였음. 본 패널조사의 1차년도(2011년) 조사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이었으며, 5차년도(2015년)에는 중학교 2학년에 진학하였음. 본 보고서에서는 5차년도 중2 패널 총 1,334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에서는 다문화정체성과 관련해서 다음 5개 영역을 조사하고 있음.
 - ① 국적에 대한 인식 : 자신을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견해
 - ② 한국인정체성 : 한국인으로서 자신의 감정을 어느 정도 개입시키고 있는지, 즉 한국과 자신을 얼마나 동일시하고 있는지의 정도
 - ③ 다문화수용성 : 자기와 다른 구성원이나 문화에 대해 집단 별 편견을 갖지 않고 자신의 문화와 동등하게 인식하며 조화로운 관계설정을 위해 노력하고 협력하는 태도
 - ④ 이중문화 수용태도 : 타문화권 사람들과 원만하게 상호작용하며, 타문화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태도로 이는 외국출신 부모 나라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를 둘 다 수용하는 수준
 - ⑤ 문화적응 스트레스 : 지각된 차별감, 향수병 및 위축감 등 한국사회에서 경험한 문화적 스트레스를 의미

2. 분석결과

1) 국적에 대한 인식

- 5년간 비교한 결과, ‘한국사람’이라는 응답이 2011년 73.0%에서 2012년 73.7%, 2013년 75.0%로 약간씩 증가하다가 중학교에 입학한 이후 2014년 74.0%, 2015년 73.7%로 감소의 경향을 보였고, ‘한국 사람인 동시에 부모님 나라 사람’이라는 응답의 비율은 2011년 21.7%, 2012년 22.8%, 2013년 23.9%, 2014년 24.7%, 2015년 24.5%로 약간씩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이 변화가 학년이 높아질수록 또는 학교 급이 높아질수록, 아니면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변화일 개연성은 있으나 뚜렷한 변화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향후의 추이를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음. 다만, 남녀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났는데, ‘한국사람’이라는 응답은 남학생이, ‘한국 사람인 동시에 부모님 나라 사람’이라는 응답은 여학생이 일관되게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는 남녀 학생 간의 부모와의 애착관계 정도의 차이에서 비롯됐을 개연성이 있음. 대부분의 외국인 부모가 어머니이기 때문에 모녀간의 애착관계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음.

표 1 자신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부 변화추이

(단위 : %)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성별		전체	성별		전체	성별		전체	성별		전체	성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한국사람	73.0	76.8	69.4	73.7	74.4	73.0	75.0	76.7	73.3	74.0	76.3	71.8	73.7	76.9	70.6
한국 사람인 동시에 부모님 나라 사람	21.7	19.1	24.2	22.8	21.6	24.1	23.9	21.8	25.9	24.7	22.4	27.0	24.5	21.6	27.3
외국인 부모 나라 사람	3.3	2.7	3.9	1.6	1.6	1.6	0.7	1.0	0.4	0.6	0.7	0.4	0.9	0.6	1.2
잘 모르겠다	1.9	1.4	2.4	1.9	2.4	1.3	0.5	0.6	0.4	0.7	0.6	0.8	0.9	0.9	0.9
기타	0.1	-	0.1	-	-	-	-	-	-	-	-	-	-	-	-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 한국인정체성

-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점수는 2011년에는 10.58, 2012년 10.84, 2013년 11.17로 증가하였다가 중학교 입학 시기인 2014년에는 11.13, 2015년에는 11.10으로 감소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음. 남녀 간에 증감의 정도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남녀 모두 동일한 패턴을 보임.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의식 역시 국적에 대한 인식과 마찬가지로 중학교

입학 후 다소간의 변화가 관찰되고 있으며, 이는 중학교 입학시점에서 다문화정체성의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이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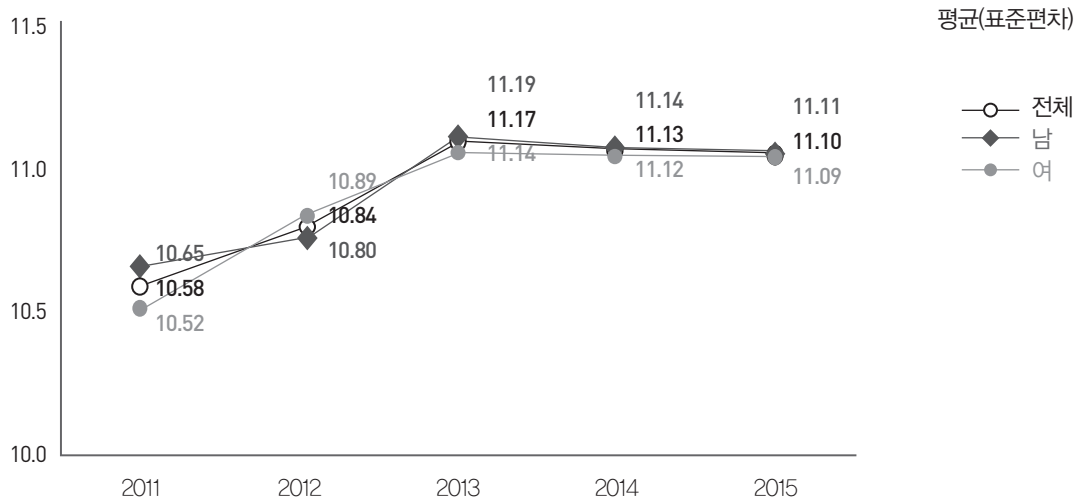


그림 1 한국인정체성 변화추이

3) 다문화수용성

- 다문화수용성 점수는 2012년 14.66, 2013년 15.12, 2014년 15.43, 2015년 15.74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증감의 정도에서 남녀 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남녀 모두 동일한 패턴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관찰되었음.
- 2015년 기준 남학생과 여학생을 비교해 본 결과 남학생은 15.53, 여학생은 15.93으로 여학생의 평균이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관찰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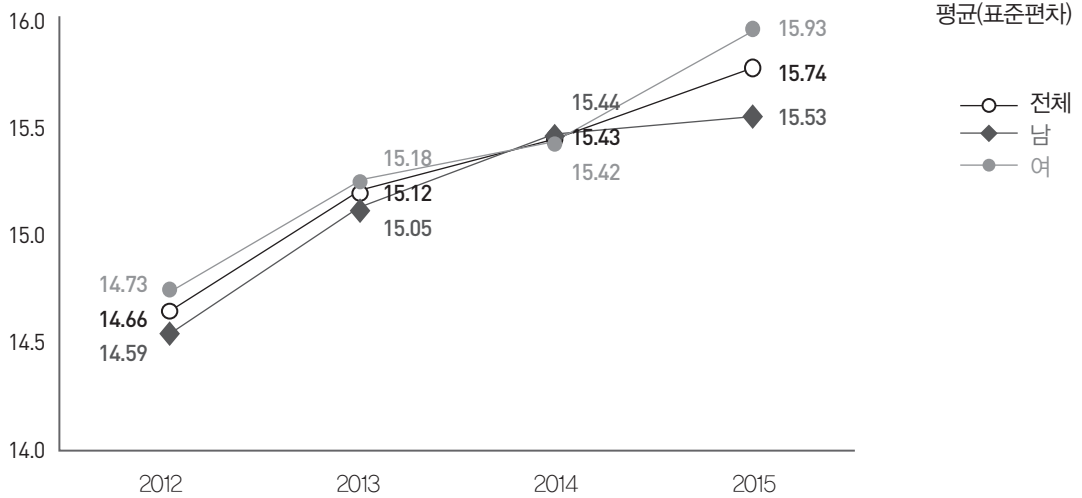


그림 2 다문화수용성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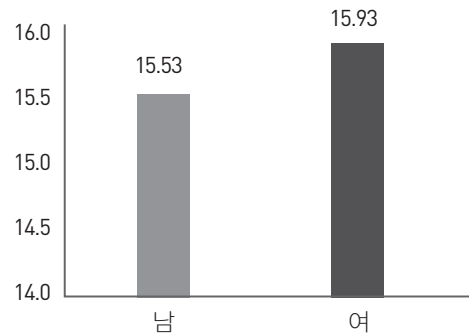
표 2 다문화수용성의 성차

평균(표준편차)

집단	2015	<i>T</i>
남	15.53(2.82)	-2.61**
여	15.93(2.75)	

**p < .01

※ 2015년 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함



4) 이중문화 수용태도

- 이중문화 수용태도 점수는 2011년 29.10, 2012년 29.01, 2013년 29.50, 2014년 29.23, 2015년 29.12로 발달 시기별 증감의 양상이 역동적으로 관찰되었으며, 이러한 변화과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확인되었음. 또한, 발달 시기별 변화의 추이도 성별 증감의 정도에서 차이가 있었으나 남녀 모두 동일한 패턴으로 관찰되었음.
- 2015년 기준 남학생과 여학생을 비교해 본 결과 남학생은 28.84, 여학생은 29.39로 여학생의 평균이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관찰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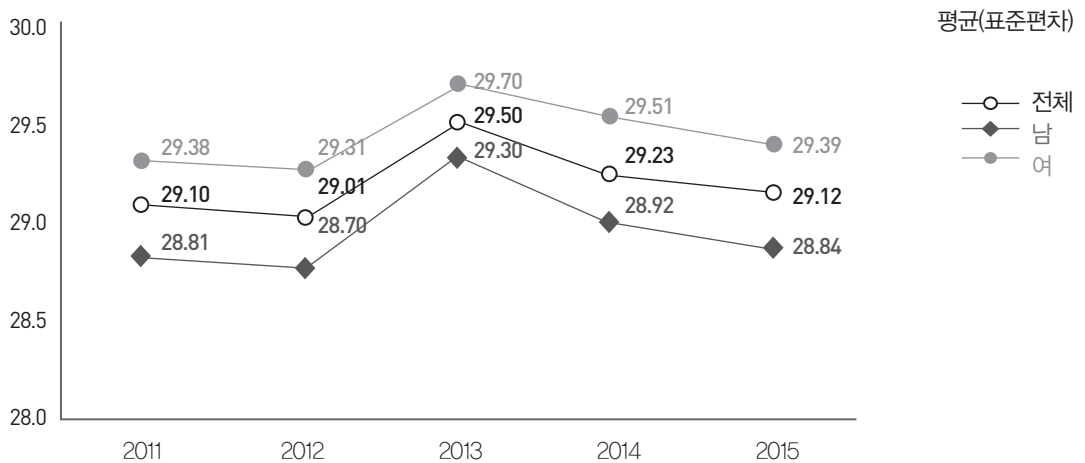


그림 3 이중문화 수용태도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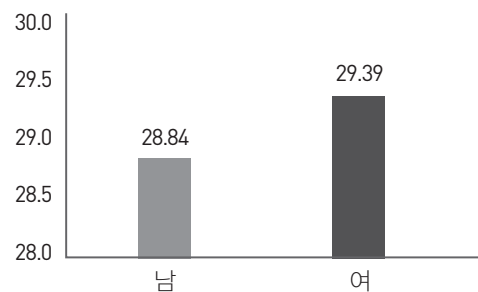
표 3 이중문화 수용태도의 성차

평균(표준편차)

집단	2015	T
남	28.84(3.89)	-2.61**
여	29.39(3.86)	

**p < .01

※ 2015년 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함



5) 문화적응 스트레스

-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은 2011년 14.68, 2012년 14.44, 2013년 14.28, 2014년 13.80으로 감소하였고, 2015년에는 14.17로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러한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관찰되었음. 또한, 발달 시기별 변화추이도 증감의 정도에서 차이가 있으나 남녀 모두 유사한 패턴으로 관찰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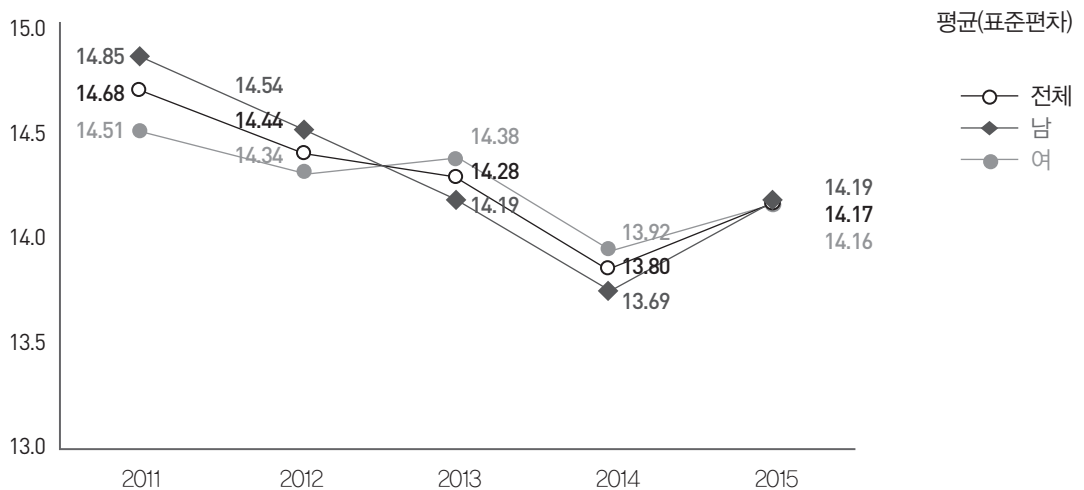


그림 4 문화적응 스트레스 변화추이

3. 종합적 논의

- 이상 초등학교 4학년 시기부터 중학교 2학년 시기까지의 다문화청소년들의 다문화정체성 관련 변인의 변화를 추적한 결과, 몇 가지 일관된 변화들을 발견할 수 있었음.
 - ‘국적에 대한 인식’,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변인에서는 일관되게 증가하다가 중학교 입학의 기점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또 남녀의 차이를 보였는데 일관되게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낮게 나왔음.
 - 이는 ‘다문화수용성’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 분명 남녀 모두 학년이 높아질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아지지만, 여학생의 다문화수용성이 높은 것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남학생보다 낮은 것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중학교 입학 후 관찰된 ‘국적에 대한 인식’,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의 변화, 즉,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낮아지는 경향이 중학생이라는 특수 환경이 작용한 결과인지, 아니면 다른 발달적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유보할 수밖에 없지만, 분명 중학교 생활이나 사춘기 진입이라는 발달적인 요인 등 그 어떤 변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향후 추가적인 분석과 연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연구문제임.

- 몇몇 변인들이 중학교 입학의 기점으로 다른 방향의 변화를 가져온 반면, 다문화수용성 만큼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높아진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음. 향후 다문화수용성이 중학교 시기에는 ‘한국인정체성’과는 달리 일관되게 증가한 것은 매우 흥미로운 결과임. 이 같은 결과는 다문화정체성의 요소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연령발달에 따라서도 특이성을 띠는 점, 그리고 남녀 간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을 보여줌. 향후 이와 같은 문제들의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의 정체성 발달에 대한 보다 정교한 이론의 정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참고문헌

- 전병주(2014).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국민정체성에 관한 연구 : Heater의 이론을 적용하여. 디지털융복합연구, 12(4), 33-41.
- Clark, K. B., & Clark, M. K.(1947). Racial identification and preference in Negro children. in T. M. Newcomb & E. I Hartley(Eds.), Reading in social psychology(pp. 169-178). New york: Holt, Reinhart & Winston.
- Na, I. S.(2008). Affecting Factors on the Stress among Foreign immigrant Women by marriage in Korea. Journal of Nonprofit research, Vol. 7, No. 1, pp. 97-136.
- Rice, F. philip(2003). 청소년 심리학. 정영숙 · 신민섭 · 설인자 역. 시그마프레스.
- Romero, A. J., Carvajal, S. C., Valle, F. & Orduna, M. (2007). Adolescent bicultural stress and its impact on mental well-being among Latinos, Asian American, and European American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5(4), 519-534.
- Sue, Derald Wing, and Sue, David(2011). 다문화상담: 이론과 실제. 하혜숙 · 김태호 · 김인규 · 이호준 · 임은미 역. 서울: 학지사.